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팀의 첫 홈런포를 장식한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한발 빠른 수비까지 선보이는 등 공수주에서 활약하며 MVP를 노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수비는 걱정마 홈런도 기대해

KIA 겁없는 야수 막내 김도영, 한국시리즈 맞춰 수비 과감한 변화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집중”...우려의 시선 지우며 큰 무대 활약



실력과 빠른 발로 '40-40'에 도전하면서 매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김도영은 한국시리즈의 키플레이어로도 꼽히면서 미디어데이에 양현종과 함께 선수 대표로 참가했고, 2차전에서는 결승타와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다.

삼성 황동재를 상대한 2차전 1회말 무사 2-3루, 김도영은 침착하게 팀 배팅을 하면서 2루로 공을 보냈고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박찬호가 홈에 들어왔다. 공격 시작과 함께 선취점을 만든 KIA는 1회에 5점을 뽑아내면서 2차전 승기를 잡았다. 경기가 그대로 8-3 승리로 끝나면서 김도영은 결승타를 기록했다.

김도영은 2회에는 홈런타자가 돼 포효했다. 김도영은 2사에서 이승민의 5구째 142km 직구를 우측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한국시리즈 첫 홈런을

장식했다. 개인 1호이자 이번 시리즈 팀의 첫 홈런이었다.

김도영은 “그 코스에 그 공을 넘겠다는 게 고무적인 것 같다. 초구 파울 되고 나서 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했다”며 “시리즈에서는 점수 차 상관없이 홈런은 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점수 차가 있었지만 홈런이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1차전에서도 적시타를 기록하는 등 김도영은 기대했던 공격에서 침착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다.

2차전 경기가 끝난 뒤 수훈선수 인터뷰를 하기 위해 나란히 양현종과 자리를 했던 김도영은 “대선배”의 부러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2차전 데일리 MVP 양현종은 “어린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나 어렸을 때는 청심환도 먹으려고 하고, 긴장 푸는 방법을 많이 찾았는데 어린 선수들은 이런 걸 즐기려고 한다”며 “도영이도 시즌 때도 그렇고 자기 플레이를 하고 있다. 부럽다”고 요즘 선수들의 남다른 멘탈을 이야기했다.

김도영은 수비에서도 과감하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우려의 시선을 지우고 있다. 큰 무대

를 앞두고 김도영은 과감한 변화를 줬다.

김도영은 “수비 스타트를 바꿨다. 원래는 시야가 흔들려서 스타트할 때 점프를 안 했다. 다리고 정시키고 있다가 타구 오면 스타트했다. 그런 것 버리고 시즌 후반부터 점프를 했는데, 발이 잘 움직여졌다. 그래서 스타트가 잘 되고 있다. 안정감이 생겼다”며 “시즌 후반부터 수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바꿨다.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스펜디드가 선언되면서 23일 재개됐던 6회초 무사 1-2루 상황에서 김도영은 중요한 아웃 카운트를 합작했다.

정상현이 던진 초구에 삼성 김영웅의 번트가 나왔고, 포수 바로 앞에 공이 떨어졌다. 김도영은 김태군에게 공을 넘겨받으면서 이날 시리즈 승부를 바꾸는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김도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작전이었다. 그 순간 생각할 정신도 없어서 떨리지는 않았다. 애초에 1점을 준다는 생각으로 수비를 하자고 코치님이 하셨는데, 기본기 충실히 하다 보니까 점수를 안 주게 됐다”며 “사실 첫 경기 내준다는 마음으로 편이 들어갔었는데 무실점으로 끝내니까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기대했던 공격에 이어 수비에서도 자신감을 더한 김도영이 삼성 안방에서 열리는 3-4차전을 통해 한국시리즈 MVP를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3연승 도전” vs “분위기 반전”

KIA 라우어·삼성 레이스 3차전 선발 격돌

KIA 타이거즈의 에릭 라우어와 삼성 라이온즈의 대니 레이스가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맞붙는다.

비로 힘든 한국시리즈 1-2차전을 치른 KIA와 삼성이 25일부터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로 이동해 3-4차전 대결을 갖는다.

사상 첫 포스트시즌 서스펜디드 게임을 잡으면서 2차전까지 승리로 장식한 KIA는 라우어를 앞세워 3연승에 도전한다. KIA의 화력에 고전한 삼성은 레이스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KIA와 삼성의 3차전 키워드는 각각 ‘연승 잇기’와 ‘분위기 반전’이다. 두 선발 투수의 키워드는 반대다. 라우어는 ‘자존심 회복’, 레이스는 ‘MVP 면모 과시’를 목표로 한다.

월 크로우의 부상 대체 선수로 시즌 중반 KIA에 합류한 라우어는 ‘빅리그 36승’이라는 명성과 달리 정규시즌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6경기에 나온 그는 34.2이닝을 던지면서 4.93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2패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반면 원태인과 삼성 마운드를 끌어왔던 레이스는

포스트시즌에도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끈 주역이었다.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6.1이닝 3실점(1자책점)의 피칭을 선보인 그는 4차전에서는 7이닝을 무실점을 막고 준플레이오프 MVP에 올랐다.

포스트시즌에서 위력을 발휘한 그에게는 ‘비’도 호재가 됐다. 비로 3차전 일정이 하루 밀리면서 레이스는 5일을 쉬고 한국시리즈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올 시즌 성적과 최근 흐름을 보면 레이스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라우어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다. 바로 KIA의 방망이다.

KIA 타자들은 올 시즌 레이스와 3차례 만나 2패를 안겨줬다. 레이스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81이지만 KIA를 상대로는 8.31까지 치솟는다.

라우어가 타자들을 밟고 초반 싸움을 버텨준다면 든든한 불펜까지 가세해 연승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아쉬운 시즌을 보냈던 라우어가 큰 무대에서 KIA의 비밀병기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00% 전력에 경험까지...좋은 분위기 이어가야죠”

프로 첫 가을야구 KIA 변우혁, 그라운드 관리 직원에 선물

프로 첫 한국시리즈를 경험한 KIA 타이거즈 내야수 변우혁이 ‘원팀’을 이야기하며 감사의 선물을 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챔피언스필드에서는 유례없는 ‘2박 3일’의 한국시리즈가 펼쳐졌다. 21일 방수포를 덮었다 경기를 반복하면서 어렵게 한국시리즈 1차전이 시작됐지만 6회초 무사 1-2루에서 서스펜디드가 선언됐다.

22일에도 양 팀 선수들은 하늘을 올려보면서 애를 태웠고, 결국 이 경기가 미뤄지면서 23일 1차전 잔여 이닝과 2차전 경기가 연달아 진행됐다.

예정과 다른 흐름이 이어지면서 경기 준비에 애를 먹은 선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땀을 흘린 이들이 있다.

바로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 관리 직원이다. 이들은 낯에 대해 방수 작업을 반복하고, 밤낮없이 그라운드를 정리한 한국시리즈의 ‘수훈 선수’다.

이들의 노고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선수가 있었다.

내야수 변우혁은 프린트를 통해 그라운드 관리 직원들에게 커피를 선물했다.

변우혁은 “1차전에 방수포 작업을 하는데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고생을 하는 게 보였다.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약을 쓰면서 작업을 하는 게 힘들어 보였다”며 “그리고 23일에 운동하러 야구장에 나왔는데 그라운드 상태가 너무 좋았다. 운동할 때도 계속 정비 작업을 하고 계셨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느껴져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수비’로 출격 준비를 하고 있던 변우혁에게는 그라운드가 주요 관심사였고, 그만큼 더 감사한 마음이 컸다.

변우혁은 “대수비로 나갈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라운드를 신경 썼다. 첫날 같은 땅에서 했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나에게도 수비가 우선 중요하니까 그라운드 상태에 신경을 썼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관리를 잘해주셨다. 우리 잘 하라고 도와주신 거니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변우혁은 좋은 그라운드에서 한국시리즈 첫발을 내디디고 승리의 순간을 만끽했다.

변우혁은 “장내 아나운서가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관중석의 그 함성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며 “1차전 첫날 이렇듯 서스펜디드 게임할 때는 벤치에서 정말 긴장이 많이 됐다. 점수가 안 나고 그러니까 긴장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막상 경기 나가니까 그냥 똑같은 야구경기였다. 경기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 긴장이 안 됐다”고 말했다.

KIA는 2승을 안고 대구로 가서 ‘V12’를 위한 승수를 더하게 된다. 변우혁은 좋은 분위기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변우혁은 “경기하면서 우리 팀의 여유가 느껴졌다. 삼성은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도 있는데 우리는 100% 다 나가고 있고, 경험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 선배들이 앞에서 쉽게 쉽게 만들어주니까 나랑 규성이 형, 정우 형은 뒤에 나가도 조금 더 편한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팀 분위기가 정말 좋다. 분위기 이어서 좋은 경기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바람의 아들’ 이종범, KT 코치로 합류

‘바람의 아들’ 이종범(54·사진) 코치가 KT 위즈에 새바람을 불어넣는다.

프로야구 KT관계자는 24일 “이종범 코치와 23일 계약했다”며 “그동안 우수함 지도력을 보여준 이종범 코치는 여러 방면에서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직은 1루 및 외야 수비 코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이종범 코치의 주루 지도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범 코치는 현역 시절 4차례 도루왕에 올랐고, 1994년엔 한 시즌 최다인 84개의 도루를 성공했다.

코치로 몸담았던 LG 트윈스에서도 다양한 작전 및 주루 능력을 십여 넣었다.

올해 정규시즌 팀 도루(61개) 최하위를 기록한 KT가 시즌 종료 후 이종범 코치 영입을 추진한 이유다. KT의 팀 도루 성공률은 0.693으로 리그 평균(0.744)을 밑돌았다.



이종범 코치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해태 타이거즈(현 KIA)에서 리그 최고의 활약을 펼친 뒤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에 몸담았고, 2001년 KIA로 돌아와 2012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김용우 전 감독을 따라 한화에서 주루 코치로 활동한 뒤 LG 코치, 방수해설위원 등을 거쳤다. 올해엔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연수 코치로 활동하며 아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현지 적응을 도왔다.

이종범 코치는 마법사 군단에 합류하면서 이강철 KT감독과 재회하게 됐다.

이강철 감독과 이종범 코치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해태 왕조의 투타 중심으로 팀 전성기를 이끌었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KIA에서 함께 뛰었다. /연합뉴스